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2026년 9월 29일 (화) 10:30
- 장 소: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
- 참 석: 재적위원 10명 중 9명 참석
(박상복, 박수지, 원영철, 유해순, 이선영, 이재근, 이종관, 전홍록, 허남윤)

○위원장 000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000입니다.

지난주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 기준 금액 결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사항으로는 첫 번째, 회의 공개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에 구체적인 인상 수치 내지는 인상 수준, 어느 도시 수준 이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실행 방법, 그다음에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결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고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회의 공개 여부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1차 회의 때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 회의는 공개해야 하지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도 공개를 했으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공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토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2항, 2027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 월정수당은 연간 2,999만 원이고, 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할 경우 2027년 월정수당은 연간 3,104만 원이 되고, 전체 의정비 증액은 4,90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3.5%로 할 것인지, 지난번에는 대부분의 많은 위원님들 한 여섯 분 정도가 3.5% 인상하는 것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여론조사 내지는 아니면 공청회를 해야 할 듯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쪽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부담 가실 테니까 지난번 말씀해 주신 거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000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 일주일 사이에…… 이제 위원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다른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20% 인상안을 놓고 지금 협의 중이고, 사실상 거의 확정됐다라는 얘기를 건네 들었고요.

춘천이 지금 5,111만 원인가요? 지금 5,111만 원, 의정활동비 빼고 월정수당이 3,311만 원인데 거의 한 10~20% 사이로 결정될 걸로 나왔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정책보좌관들보다도 의원들이 받는 어떤…… 사실 급여라기보다는 의정활동비라든가 의정비인데, 좀 더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적어도 ‘많이 주고, 많이 부려 먹자’ 이런 컨셉으로 좀 가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또 자발적으로 해외연수비용 반납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별개로 치더라도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의정비의 어떤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좀 논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견들을 묻자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됐습니다.

그거 제가 들은 파악된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000 지금 000 위원님 말씀은, 강원도 의회가 20% 인상안을 잠정 결정을 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춘천에서는 10~20%의 인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이 오히려 원주

시의원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000 000 위원님.

○○○○ 위원 000 위원입니다.

전에도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춘천시가 저희보다 재정 여건도 비슷하고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수는 원주가 좀 많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금액으로다가 원주시는 2,999만 원, 춘천시는 3,311만 원 그레가지고서 그 차이만도 지금 차액이 10.4%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3천 거기에다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3.5% 춘천시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원주시로다가 치면은 14.2% 정도 인상이 돼야지 춘천시의 현재의 공무원 보수 인상금 한 그 금액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일해보면 시의원들 역할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사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시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역할을 같이 하다 보면은…… 물론 시의원 중에서 시민들 저거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에 제2 혁신도시 또 제2 의료기기 침복단지 같은 걸 유치하는 역할도 시의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인데, 시의원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월정수당으로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월정수당밖에 없으니까, 월정수당은 최소한 제 생각에는 춘천시의 3.5% 정도까지, 3.5% 인상안까지 좀 감안을 해서 공청회를 해가지고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000 000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의원의 역할이 크다. 시민과 생각이 거리가 좀 있다. 그리고 강원도 내 원주시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적절한 보수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춘천시의 공무원 인상률 3.5%를 인상한 것을 가정해서 춘천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죠.

000 위원님.

○○○○ 위원 안녕하세요. 000입니다.

지역마다 의정활동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정활동비 수당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 수 올리는 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이게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000 네.

○○○○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4년에 한 번 이렇게 프로 수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정말 시의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프로 수가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현실에 보면은 경제도 많이 활성화됐지만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또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보다 조금 높은 프로 수가 올라갔는데, 우리 공무원 이 보수하고 같이 프로 수하고, 춘천도 춘천이지만 우리도 거기에 더 넘치지 않고 적게 하지도 않고, 중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평등하게,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 수를 책정을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보면 중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많이 올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측정된다는 거를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앞의 위원님들과 같이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000 000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열심히도 하고 물가상승도 보조했고, 그래서 춘천시와 원주시의 임금 격차의 중간 정도로 잠정안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

000 위원님.

○○○○ 위원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제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아졌을 때 좀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집에서는 사실 전국하고 원주하고의 재정 능력이나 의정활동 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어가지고, 또 지금 주신 자료도 1인당 의안 발의 건수를 보여주고 계신데, 제가 자료들을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봤는데 좀 불리하게 여기 통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봤을 때 춘천시와 비교해서 1인당 발의 건수는 좀 많이 나왔네요. 많이 좀 높게 나왔지만은 발의한 조례 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임을 좀 가늠해 봤을 때 원주시가 하고 있는 일이 춘천과 비교해서 적지 않다라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공청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정하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걸 종합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000 예, 000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인상했던 그 생각보다는 많이 생각이 달라지셨다라고 하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요. 좀 여쭙볼 게 3.5%라는 그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정 부분 논의된 바가 있으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000 10명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시고, 3.5%보다는 훨씬 높게 하자는 분이 세 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섯 분 정도가 3.5%가 공무원 인상률이니까 그 정도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잠정안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000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3.5%에서 춘천시 그 사이에서 공청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춘천시 정도라고 하면 그거, 아니면 춘천시하고 원주시의 중간 정도로 의견이 많이 나오면 그걸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3.5%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으면 그걸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대충 공청회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3.5%로 그냥 결정을 하자 아니면 여론조사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첫 번째 3.5% 오늘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다른 쪽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우리에게도 좀 불리하고, 그래서 공청회를 좀 하는 건 어떤가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상률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3.5%를 초과하는 거, 3.5%가 됐든 3.6%가 됐든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시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의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5% 이상으로 하는 걸로 거수로…….

(위원 거수)

아홉 분 다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3.5%를 초과할 때는 원래 인상률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결정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3.5%에서 춘천시 사이로 잠정안을 우리가 결정해서 그 안을 공청회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것에 문제가 없죠?

○기획팀장 000 인상률이든 금액이든 명확하게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000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5%에서 14% 사이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잠정안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이거죠.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혹시?

○기획팀장 000 가이드에서 잠정금액을 결정해서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월정수당이 아니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때였는데요.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110만 원 이하, 130만 원 이하, 150만 원 이하 의견이 좀 분분하다가 결국은 150만 원으로 잠정액을 결정해서 공청회를 여셨거든요.

○위원장 000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결정하기가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3.5%에서 춘천시 그 사이로 하니까 이 자체를 그냥 공청회에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일단 들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기획과장 000 기획과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000 네 기획과장님.

○기획과장 000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령을 구체화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때 할 때 공청회를 할 때는 잠정액을 정해서 공청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공청회가 아시겠지만 찬반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찬반토론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이것은 가상의 수치인데—1%, 2%라고 했을 때 1%와 2%의 차이를 가지고 토론한다고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찬반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는 거 같고, 1%와 2%의 차이는 찬반토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위원장 000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10%를 인상하는 걸로 잠정 한다고 했을 때 10%가 좀 너무 많이 올린 거다, 중간을 넘어선 범위다라고 하면 그것은 반대하는 부분이 더 많으면 10% 밑에서, 9%, 8%, 7%에서 결정할 수 있

는 거죠?

○기획과장 000 맞습니다. 말 그대로 잠정수치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000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행령을 검토해 보지 못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3.5%에서 춘천시까지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을 공청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시행령에서는 잠정안을 하고 거기에서 찬성이나 반대냐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청회 끝나고 나서 10월 30일 이전에, 2, 3일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공청회의 잠정안 금액 범위 안에서 밑으로, 위로는 더 올릴 수 없고 그 밑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에 찬반을 물을 금액,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춘천시다, 아니면 춘천시 중간이다, 아니면 3.5%다…….

○○○○ 위원 그러면 공청회 때 찬성이 되면 그냥 그게……

○위원장 000 그것은 아니고요. 찬성이 돼도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공청회나 여론조사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견이니까 100%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은 공청회에서 의견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공청회를 하면 분명히 찬반의견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영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가 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얼마가 몇 명, 몇 명 딱 나오겠지만, 공청회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텐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금액을 선정……

○기획팀장 000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공청회를 하게 되면 찬반 발표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거든요. 찬반 발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참석하신 주민의견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의견들을 3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금액 결정할 때 참고로 반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것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심의하실 때 반영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000 2년 전에도 보니까 공청회를 했는데 사실 질문 같은 거 많지는 않았습시다. 한 3명 정도, 2명에서 3명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인상안을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고, 두 분은 인상하는 거, 두 분은 인상안

에 반대하는, 그래서 논리가 명확하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지난번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를 하면서 올려야 된다, 올리게 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을 각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논리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맨 위 것을 정해놓으면 그 밑으로만 정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거수 투표해서 중간으로 하자, 춘천시로 하자 이렇게는 안 되니까 다른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시간은 가는데 어떻게 결론을 지으면 좋을까요?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가능하면 사회를 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기는 한데, 원주시청의 1년 예산이 1조 7,400억 원 정도 됩니다. 원주시의회 1년 예산이 77억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12억 원입니다. 그래서 15.6% 정도가 됩니다. 정책지원관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의 평균 임금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원이 정책지원관을 리드해야 되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정책지원관 월급이 훨씬 높습니다. 약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현재 원주시의회 의원님들이 받는 것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포함해서 4,799만 원인데, 이것은 7급 중간 정도에서, 공무원 수요로 보면 7급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6급 정도는 돼야, 과장까지는 아니어도 6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춘천과 3.5%의 중간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춘천 현재 금액을 인상안으로 하고 거기에서 더 밑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면, 중간 정도의 결정을 하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춘천시의 월정수당 수준을 제시안으로 하고, 거기에서 더 밑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한 가지 좀 여쭙볼 게 있는데요.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다른 지자체나 강원도 차원에서 이번에 의정비심의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인상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혹시 그 이유나 배경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수준에서, 왜냐

하면 지금 권고안으로 논의된 3.5%라는 비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잠정 결정한 인상률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혹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저희가 의사결정 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000 저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정책지원관보다 훨씬 낮은 활동비를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000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 권고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정부에서 가이드를 줘서 “3.5%로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 거고, 하나의 가이드로서 3.5% 이상 넘어갔을 시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기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현실화적인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실화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사실상 각자의 마음마다 갖고 있는 기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할 때도 보통 빅스텝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듯이 작은 단위가 아니라 큰 스텝으로 좀 격차를 넓히면서 일단은 다른 지역, 아마 춘천도 강원도 시군에서는 탐수준이라고 하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의정비 현황들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점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원주가 갖고 있는 어떤 세도 좀 고려해 보고, 다른 지자체와도, 아까 000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의원들 돈을 많이 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원주시 상황,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자치단체 상황들, 이런 비슷한 여건들의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 그쪽보다는, 우리가 더 넘어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들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제로. 하지만 그래도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의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상의 금액을 많이 받는 만큼 당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감시의 눈 또한 더욱 촘촘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빨깃하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시민들이 당신을 뽑아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임기 동안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라 이

런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면 의원들 대부분이 인상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만, 또 일부 의원들은 저한테 껏속말로 속삭이듯이 “굳이 안 올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원들마다 생각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꼭 주목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의원들 모두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더 줄 테니까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3.5%라고 하는 기준이 의정비 전체에 대한 3.5%인지, 아니면 월정수당에 대한 3.5%인지 그게 조금……

○위원장 000 월정수당에 관한 것만입니다.

○○○○ 위원 그렇죠. 의정비의 3.5%하고 월정수당 3.5%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000 네, 의정활동비는 작년, 재작년에 1,800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 행안부에서 연락을 해주는데 올해는 월정수당에 한해서만입니다.

○○○○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000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시고 이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 이것은 공청회에서 찬반을 묻기 위한 잠정액입니다. 공청회에서 찬반을…… 공청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이따 다시 의사일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월정수당 잠정액은 공청회 찬반을 묻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월정수당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춘천시의원이 연간 받는 인상률과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아니, 현재 금액으로 하면 안 되고, 현재 춘천시 받는 금액에 공무원 인상률 있잖아요, 3.5%. 그것까지 해서 상한선을……

○위원장 000 좀 낮춰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 위원 그래도 아마 다른 데서 올리고 그러면 원주시가 지금 현재 보다는 순위가 많이 떨어질 거고…….

○위원장 000 지금 현재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퍼센트를 올린다 하더라도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다섯 번째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거의 비슷했는데, 시별로. 그런데 군하고 좀 차이가, 시는 거의 비슷했는데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16년 전, 12년 전에 다른 데 비해서 반 정도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

어떻게 됐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 위원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해도……

○위원장 000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은 공청회 찬반을 위한 잠정액입니다. 2026년 월정수당에서 퍼센트는 모르지만 춘천시의회가 3.5%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을 일단 가정하에 몇 퍼센트를 인상하고 연간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은 공청회 찬반을 위한 금액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춘천시의 3.5%를 감안한 인상 금액으로 일단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지, 저희들이 잠정안으로 확정됐다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월정수당 잠정액은 공청회 찬반을 위한 금액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됐지만, 회의록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이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하므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공청회를 대부분 지금 원하셨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은 공청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 정회 끝난 다음에 결정할 것은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잠정적인 공청회 금액을 얘기해 주실 거고, 공청회를 했을 때 언제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상의할 거고, 2028년도부터 30년까지 월정수당을 공무원 인상분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또 결정하고, 차기 회의날짜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000 속개하고자 합니다.

월정수당 잠정 공청회에 찬반을 묻는 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결정한 대로 그 금액을 말씀하겠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잠정액은 2026년 월정수당에서 14.3% 인상한 연간 3,427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7년 월정 잠정액은 2026년 월정수당에서 14.3% 인상된 연간 3,427만 원으로 공청회에서 찬반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의견을 다 주셨으니까 공청회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 다목적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가능한 날짜가 10월 15일 이게 목요일인가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하고, 10월 21일 중일 사용 가능한데, 제가 강의 오전에 있으니까 오후, 10월 21일 오후.

자, 그러면 혹시 10월 15일 목요일 오전이나 10월 21일 수요일 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으신 분은 좀 손을 한번 들어주시오. 100% 참석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가급적 다 참석해서서 우리가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특별한……

○○○○ 위원 저는 21일은 수요일 날 오후는 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000 아, 21일 수요일 오후는 일정이 있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10월 15일 오전으로, 한 10시 정도면 될까요? 10시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공청회는 2026년 10월 15일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수렴 방법은 공식을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보름 정도가 남습니다. 결정하는 날짜까지. 그럼 10월 마지막 췌 주에 최종 우리 회의를 하면 어떨까요? 최종. 그러면 월화수목금 중에서 수요일날 오후 목요일날 오전 중에서 어떨까요? 목요일날 오전에 어떠세요?

○○○○ 위원 29일이요?

○위원장 000 네, 29일.

○○○○ 위원 29일은 제가 지금 신문협회에서 하는 기자들……

○위원장 000 우리 팀장님 꼭 계셔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어린 아이들을 기자로……

○위원장 000 이거는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안 되면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해도 4시쯤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 위원 수요일 오후는 제가 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000 아, 다른 일정이 있으시죠?

그러면 수요일날 오전은 어떠세요? 좀 무리가 따르기는 한데 수요일날 오전 어떠세요?

○○○○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000 괜찮습니까? 그러면 10월 28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의회는 2026년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일정이 상당히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릴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서 하나의 안으로 만들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2028년부터 30년까지 원주시의회 의정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